



해외 기관투자자, 위험관리 중

1. CalPERS, 사모주식과 Income(채권), 유동성 비중 확대

-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음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지난해부터 선진국 주식을 줄이고, 유동성을 늘려나가는 전략 구사
-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모주식(Public Equity) 비중 축소. Income(채권)과 유동성 등 안전자산 비중 확대

2. ABP와 CPPIB, 안전자산 비중 확대

- ABP의 주식비중은 상반기에 33.2%에서 32.7%로 0.5% 감소. 같은 기간 채권과 대체자산은 0.7%와 1.0% 증가. 대체자산 중에서는 Private Equity 비중이 0.8% 늘었고, Hedge Fund 비중이 0.8% 줄었음
- 중장기적으로 CPPIB는 신흥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면서, 신흥국 주식 투자 규모 늘리고 있음

3. GPIF(일본)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주식 비중 축소

- 2021년 상반기 GPIF는 국내주식의 비중을 0.8%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은 0.1% 늘렸음. 같은 기간 국내채권 비중은 1.8% 늘리고, 해외채권의 비중을 1.0% 줄였음
-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상반기에 주식 비중을 72.8%에서 72.4%로 0.4% 줄이고, 채권 비중을 24.7%에서 25.1%로 늘렸음. 신흥국 주식 중에서는 중국 비중을 0.4% 줄이고, 대만과 인도의 비중을 0.2%씩 늘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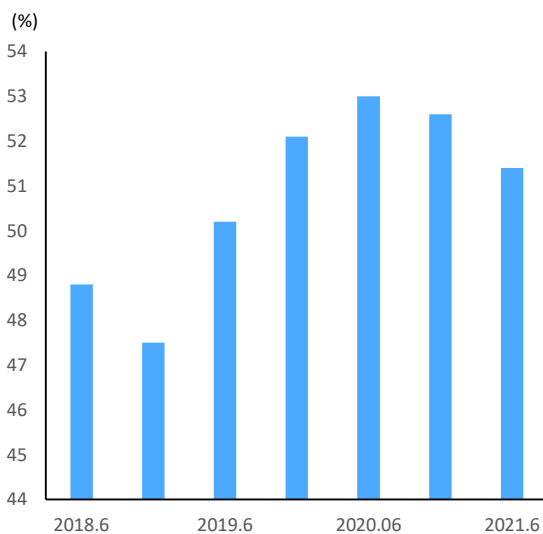
1. CalPERS, 사모주식과 Income(채권), 유동성 비중 확대

테이퍼링,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펀드 시장 플로우를 살펴봐도, 유형별(미국주식펀드, 유럽주식펀드, 신흥국주식펀드 등)로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선진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장기 자산배분 국면에서도 정해진 주식비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작년부터 주식 비중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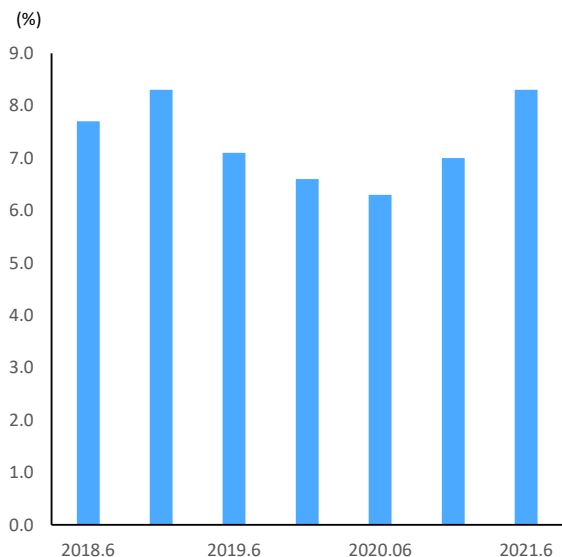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모주식(Public Equity)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반면, 사모주식(Private Equity)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모주식(Private Equity)비중을 늘리는 추세이며, 이는 CalPERS도 마찬가지이다. CalPERS는 작년 6월 이후 (Income) 비중도 29.3%에서 29.8%로 늘리고, 유동성 비중은 0.9%에서 2.5%로 크게 늘렸다.

[차트1] CalPERS의 공모주식 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축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CalPERS의 사모주식 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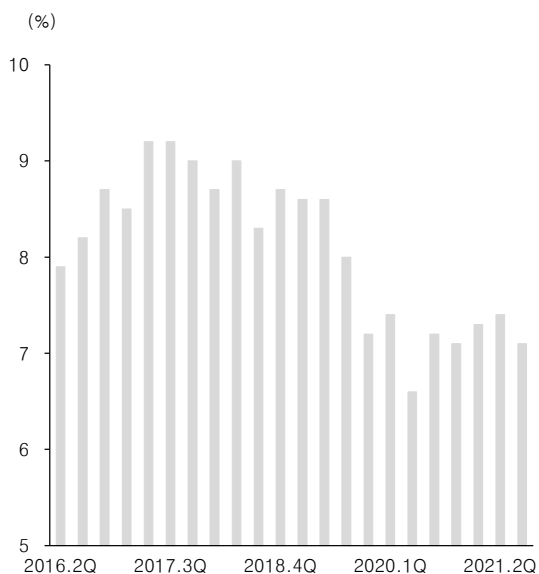
2. ABP와 CPPIB, 안전자산 비중 확대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2021년 상반기에 주식비중을 33.2%에서 32.7%로 0.5% 줄였다. 6개월 동안 선진국 주식과 신흥국주식 비중은 각각 0.3%와 0.2%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채권과 대체자산은 0.7%와 1.0%가 늘었다. 대체자산 중에서는 Private Equity 비중이 0.8% 늘었고, Hedge Fund 비중이 0.8% 줄었다.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분위기이다.

CPPIB는 올해 3월 주식 비중은 55.9%였으며, 2분기에 주식 비중을 54.4%로 줄였다. CPPIB의 주식투자는 공모주식(Public Equity) 29.2%와 사모주식(Private Equity) 26.7%로 구성된다. 2018년 사모주식(Private Equity) 비중은 20.3%로 CPPIB는 중장기적으로 사모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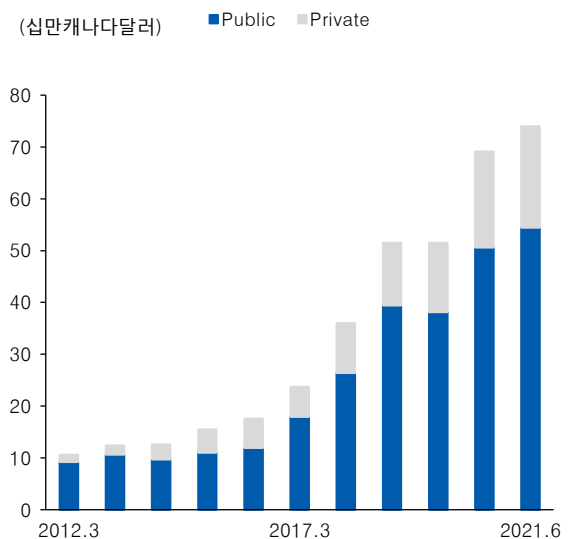
CPPIB의 2010년 주식 투자 비중은 44%였으며, 이 중 신흥국주식 비중은 4.0%였다. 2021년 주식 투자 비중은 54.4%로 늘어났으며, 이 중 신흥국 주식 비중은 14.2%로 3.6배가 늘어났다. 2021년 2분기에도 신흥국주식 투자 규모는 공모주식(Public Equity)과 사모주식(Private Equity) 모두 늘어났다. 중장기적으로 CPPIB는 신흥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차트3] ABP의 신흥국 주식 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비슷한 수준 유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CPPIB의 신흥국 주식 규모는 꾸준히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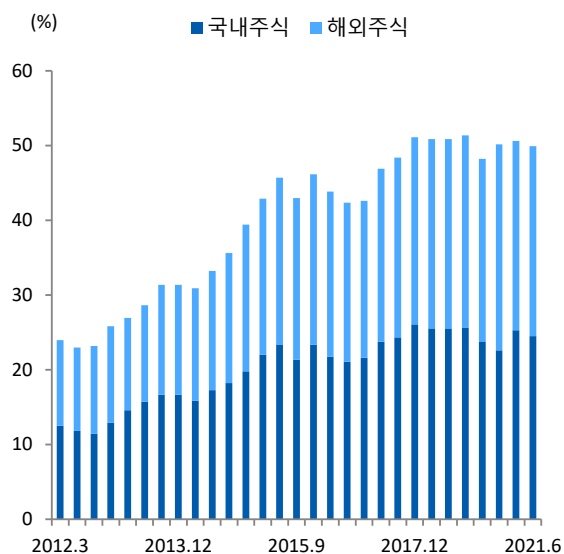
3. GPIF(일본)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주식 비중 축소

일본 연기금 GPIF는 2013년 주식 자산 비중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적용하고, 2020년 기준으로 주식 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목표 비중은 각각 25%이다. .

2021년 상반기 GPIF는 국내주식의 비중을 0.8%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은 0.1% 늘렸다. 같은 기간 국내채권 비중은 1.8% 늘리고, 해외채권의 비중을 1.0% 줄였다. 해외주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9년으로 전체 자산의 27.6%를 차지했으며, 2021년 상반기 해외주식의 비중은 25.4%까지 줄인 상태이다. 국내주식의 비중은 2020년 25.3%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24.5%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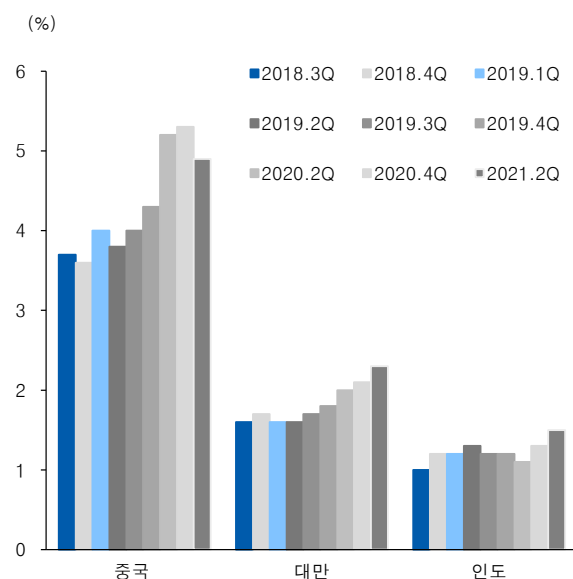
2000년 주식 비중이 40% 수준이었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주식비중을 2010년 60%, 2019년 70%로 크게 높였다. 다른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도 10~15% 정도 주식 비중이 높다. 연초 이후에는 주식 비중을 72.8%에서 72.4%로 0.4% 줄이고, 채권 비중을 24.7%에서 25.1%로 늘렸다. 신흥국 주식 중에서는 중국 비중을 0.4% 줄이고, 대만과 인도의 비중을 0.2%씩 늘렸다.

[차트5] GPIF는 올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채권을 늘림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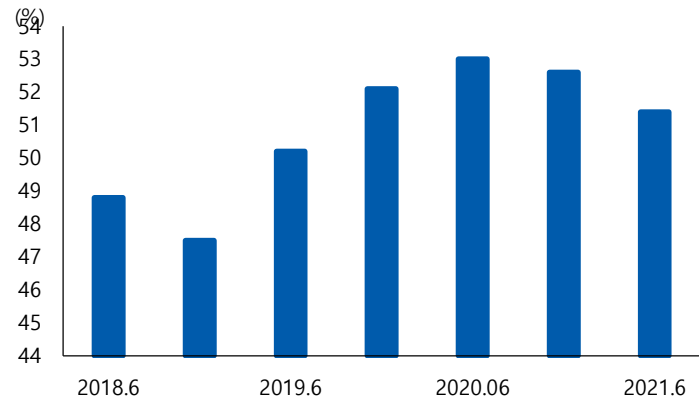
[차트6] GPFG(노르웨이), 연초 이후 중국주식 비중 축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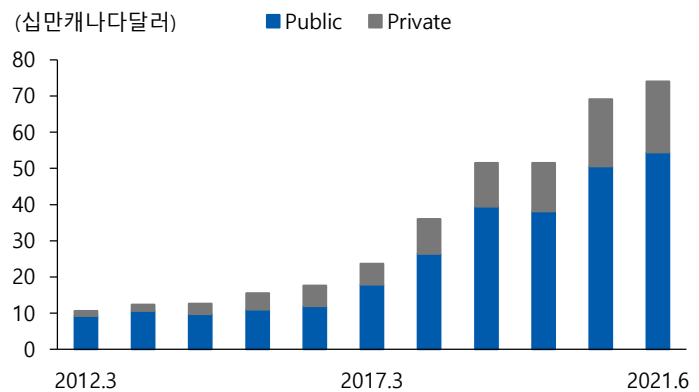
Key Chart

CalPERS의 공모주식 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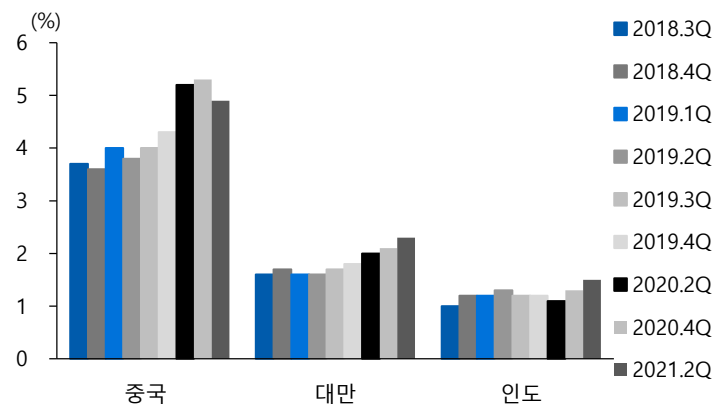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PPIB의 신흥국 주식 규모는 꾸준히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PFG(노르웨이), 연초 이후 중국
주식 비중 축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